갉아먹는 것들

관심사 독해 리포트 · 2026년 11월 5일자 수집분

수집 현황: 승인 피드 19개 중 제외 2개(EerdWord, Leiter Reports)와 접근 중단 5개(The Next Recession, Conversable Economist, Jesus Memoirs, Scott Aaronson, The Comics Journal)를 뺀 12개 모두 접속됨. 전날 새 글 11편을 모두 읽고 8편을 다뤘으며(에콘브라우저 2편은 한 꼭지로 병합), 3편(카페 하이에크 '오늘의 인용', 마지널 레볼루션의 대담 소개와 수요일 링크 모음)은 생략 — 인용문은 2번 꼭지에 한 줄로, 링크 모음의 노르드하우스 부고·실업률 항목은 메모로 기록. 8+3=11.

선거가 끝나자 글들은 장부를 펼친다. 물가와 보험료와 모기지 금리의 장부, 오염이 갉아먹는 GDP의 장부, 안보 규정이 갉아먹는 학문 협력의 장부, 존재하지 않는 참고문헌이 갉아먹는 문헌 목록의 신뢰, 그리고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삼키는 말의 장부. 성장과 신뢰와 언로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고, 무언가가 조금씩 갉아먹는다 — 오늘의 글들은 그 침식의 회계다.

---

1. 생활비의 장부 — 무엇이 물가를 올렸는가

[사실] 에콘브라우저의 연속 두 글은 '감당 가능성(affordability)' 문제의 원인별 회계다. 첫 글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무시하고 경제 이론과 실증이 '효과 있다'고 말하는 여섯 가지를 나열한다 — 관세 인하, 호르무즈 해협과 밥알만데브 해협의 재개방과 해상 보험료 인하, 합법 이민 확대, 불법 체류자 추방 축소, 재정적자 추세 감축, ACA(환자보호법) 보험시장 보험료 인상분 철회. 저자는 이것이 최적 정책 목록이라기보다, 현 정책 궤적 아래서 물가 수준과 금융 비용을 낮출 수단의 목록이라고 선을 긋는다 — 그러면서도 이 여섯 가지가 사실상 현 행정부 정책의 되돌리기임을 명시한다: 관세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은 비용 밀어내기(cost-push) 충격, 이민 감소와 강제 추방은 공급 충격, 확대된 재정적자는 구축 효과를 일으켰다는 진단이다. 둘째 글은 도표로 뒷받침한다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은 관세 부과 이후 가팔라졌고 전쟁 이후 가장 가팔라졌으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날 물가가 전쟁 수행에 반응해 올랐다고 인정했다고 전한다. 전쟁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차입이 모기지 금리를 밀어올렸고, ACA 보험료 인상은 이 법에 직접 귀속시킨다. **[해석]** 11월 3일 꼭지(KFF: 2027년 ACA 기준 보험료 +13%, 누적 +42%)의 원인 귀속 편이다. 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물가와 전쟁'이 꼽히는(11월 5일 꼭지의 밴스 발언 보도) 시점에, 경제학자 블로그가 같은 장부를 메커니즘별로 펼쳐 보인 것이다. 진단과 귀속은 저자의 분석으로 전한다.

2. 패배의 해부, 이틀째 — 보수 논평가들의 사후 분석

[사실] 카페 하이에크가 모은 중간선거 사후 칼럼 세 편(2차 인용)은 같은 진영의 세 가지 해부도다. 매슈 헤너시(월스트리트저널): 이런 전국적 참패 뒤에 유능한 팀이라면 결산을 하겠지만, 공화당은 그러지 못할 것이며, 유일한 치료는 시간 — 유권자가 민주당의 오만과 무능에도 질려 언젠가 공화당에 다시 운전대를 줄 것이라는 냉소적 전망. 유발 레빈: 이 행정부는 공공적 비전 없이 대통령의 충동으로 정의됐고, 전쟁과 무역 정책처럼 판돈이 큰 일을 끝낼 전략 없이 시작하고 넘어갔으며, 이제 대중의 반응을 규정하는 것은 '피로감' — 언제나 멍청했던 별명 짓기와 투덜거림을 예전에는 재미있어하던 지지자들이 이제 견디지 못한다는 진단. 조지 윌: 유권자가 민주당에 준 것은 위임장이 아니라 '멈추라'는 부정적 명령 — "만연한 자아도취와 부패, 무모함, 무능을 멈추라". 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이 2024년의 득표 이슈였던 이민을 오히려 마이너스로 만들었고 관세가 물가 이슈를 상쇄했는지 묻고, 텍사스에서 머스크가 공화당에 쏟아부은 추정 2억 2,400만 달러가 "정치 자금의 효용이 급감하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을 보여 줬다고 쓴다(당선된 탈라리코의 "텍사스는 팔리지 않는다"는 구호와 함께). **[해석]** 어제(11월 5일 리포트)에 이은 이틀째의 사후 분석 모음으로, 반트럼프 보수·자유지상주의 진영의 목소리라는 성격을 유지한 채 귀속해 전한다. 같은 날 '오늘의 인용'이 뽑은 프랭크 마이어의 문장("국가의 힘으로 사람을 고결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현실에서 정반대를 이루며 폭정을 부른다")은 이 블로그가 이 패배를 '융합주의' 원점 복귀의 계기로 읽고 싶어함을 보여 주는 배치다.

3. 소셜미디어 극단화론의 예측은 맞았는가

[사실] 코웬의 짧은 반론 — 소셜미디어가 미국 유권자를 극단화하고 청소년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표준 논조에 대해, 방금 치러진 선거는 "트럼프와 극단적 민주당 좌파 양쪽을 물리친, 압도적으로 온건한 결과"를 냈고 청소년 정신건강의 최근 추세도 개선되는데 소셜미디어 사용과 쇼트폼 영상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것. 두 추세 모두 계속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표준적인 반(反)소셜미디어 담론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며 현재 예측에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 **[해석]** 선거 결과를 담론 검증의 자료로 쓰는 즉석 반응으로, '온건한 결과'라는 특성화부터가 코웬의 해석이다. 하나의 선거 주기와 추세 지표로 매체 효과 논쟁을 판정하는 것은 그의 전형적인 역설 스타일로, 그의 주장으로 전한다.

4. 오염은 성장을 갉아먹는다 — 인도의 공기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이 소개한 인도 경제지 특집 — 오염을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 '성장을 죽이는 것'으로 다룬다. 인용된 추정치 세 개: 랜싯 연구는 대기오염의 비용을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9.5%, 세계은행은 약 6%, 컨설팅사 달버그는 기업 손실 약 3%로 추산(모두 기사 인용, 2차 인용). 코웬 본인의 인터뷰가 실리는데, '성장 우선' 논리의 근거인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에 대한 그의 반박이 핵심이다 — 인구 보너스는 사람이고, 사람을 중독시키면 보너스가 줄어든다: 인지 점수가 낮고 호흡기 질환이 많으며 노동 수명이 짧은 젊은 노동력은 인원수가 말해 주는 것보다 작은 자산이며, 오늘 아이들에게 입은 손상은 수십 년 뒤 낮은 생산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인도 오염의 상당 부분은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다 — 펀자브와 하리아나의 볏짚 소각, 쓰레기 소각, 도로 분진, 스크러버 없는 낡은 석탄 화력, 나무와 배설물 연료는 '가난하기 때문에' 오염시키는 것이며, 정화 비용은 산출 손실이 거의 없고 일부는 오히려 산출을 키운다. 나쁜 공기는 인재에 대한 세금이기도 하다 — 외국인 전문가와 기업과 관광객에게는 선택지가 있다. **[해석]** 노르드하우스 부고(10월 30일) 이후 이 리포트가 이어 온 환경-경제 꼭지의 연속으로, '환경 비용을 성장 회계에 넣으면 성장 우선론의 결론이 바뀐다'는 논점이다. 인터뷰와 특집 기사의 주장을 인용 범위에서 전한다.

5. 이름을 지우라는 대학 — 안보 목록과 학문 협력

[사실] 리트랙션 워치가 전한 새 유형의 사건 — 부정 행위가 아니라 안보 규정이 저자 이름을 지웠다. 아이다호주립대의 응용수학자가 수석 저자로 게재 승인된 물리학 논문(Foundations of Physics, 스프링거 네이처)에서, 대학의 요청으로 그의 이름이 빠졌다. 이유: 공저자 한 명이 중국 푸단대 교수인데, 미 국방부가 7월 푸단대를 '1286 목록'(국가안보 위협 기관 목록)에 올렸고, 목록 기관 소속 연구자와의 공동 저술은 "연방 연구비 자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 준수 위험"이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부총장은 9월 29일 편집자에게 서한을 보내 이름 삭제를 공식 요청했고(본인이 페이스북에 공개), 해당 교수에게 푸단대와의 모든 협업 중단을 지시했다 — 그의 최근 연구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관련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편집장은 이론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로, 그는 저자와 상의해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답신에서 대학을 질책했다 — "미국의 정치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학의 이런 용기 없음은 과학의 기본 가치에 반하며 미국의 과학적·도덕적 쇠퇴에 기여한다"고. 대학은 해당 교수의 승진·종신 재심에서 이 논문에 '출판 실적'을 인정하도록 학과장과 학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미국 소속 공저자 둘은 논문에 남는다. **[해석]** 이 리포트가 추적하는 출판 윤리 꼭지의 새

카테고리 — 연구 부정이 아니라 규정 준수가 문헌 기록을 바꾼 사례다. 논문 자체의 학술적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철회가 '품질의 기록'이 아니라 '정치의 기록'이 되는 갈래를 보여 준다. 편집장의 표현(과학 인재의 미국 이탈 가속)까지 포함해 양쪽의 발언을 인용으로 전하며, 이 보고서는 입장을 갖지 않는다.

---

6. 존재하지 않는 참고문헌 — 1년째 방치된 논문

[사실] 리트랙션 워치의 후속 보도 — 테헤란의과대가 소유하고 스프링거 네이처가 출판하는 약학 학술지의 2025년 11월 논문 한 편이 1년째 정정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출판 후 동료 평가 플랫폼(펍피어)을 '오용'과 '과잉 회의주의'에 취약하다고 비판하는 글인데, 정작 펍피어 댓글러들이 이 논문에서 반복적 문체, 사실상 동일한 단락 구조, 존재하지 않는 참고문헌 다섯 개를 찾아냈다. 그중 하나는 리트랙션 워치 공동창업자 이반 오랜스키 명의의 존재하지 않는 2019년 네이처 기사("새로운 종류의 감시견이 연구를 뒤흔든다")다 — 남의 이름으로 지어 낸 허구 인용이 감시 단체의 창업자를 겨냥한 셈이다. 다른 허구 인용은 이오아니디스(스탠퍼드), 복스, 빅 같은 연구 진실성 분야 유명인의 명의를 달고 있고, 제시된 DOI(디지털 객체 식별자)들은 각각 토끼 고관절 연구나 다른 생화학자 인터뷰로 연결된다. 출판사는 지난해 11월 해결 작업 중이라고 했으나 1년 뒤에도 정정은 없고, 논문에는 게재 엿새 뒤 달린 '우려 인지' 편집자 주(注)만 남아 있다. 게재 당시 편집장(본인도 철회 11편의 이력)은 편집자 명단에서 사라졌고, "참고문헌 과정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그 사이 두 차례 인용됐다. **[해석]** 반복 문체·동일 단락 구조·허구 DOI의 조합은 문헌을 지어 내는 생성형 AI 오용의 전형적 지문으로 읽힌다는 것이 이 사건이 던지는 정황이며(독자 댓글의 관찰을 바탕으로 한 해석), 플랫폼 비판 논문이 정작 자신의 문헌 검증에 실패한 아이러니가 보도의 무게다. '조사'가 1년을 넘기는 사이 허구 인용은 다른 논문 두 편의 참고문헌으로 복제됐다 — 오염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

7. 누가 말을 삼키는가 — 캠퍼스 자기검열의 형태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이 소개한 새 NBER(전국경제연구소) 작업논문 — 한 사립 명문대 설문 자료로 자기검열의 구조를 분해했다. 발견은 직관을 비껴간다 — 자기검열은 단순히 '보수라서'가 아니라, 가장 온건한 견해를 가진 학생이 가장 많이 삼킨다. 이 패턴은 확신과 현저성으로 설명된다 — 자기 견해에 확신이 강하거나 그 쟁점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이 더 극단적 견해를 갖고 덜 삼킨다. 동시에 보수 학생이 진보 학생보다 자기검열률이 높고, 같은 사람도 자기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쟁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쟁점보다 더

삼키며, 보수 학생은 사회적 배제 우려를 이유로 드는 비율이 훨씬 높고 대학 공동체 밖에서는 덜 삼킨다고 답한다. 소외 집단으로 인식되는 집단은 다수 집단보다 덜 삼키며, 특히 자기 집단에 현저한 쟁점에서 그렇다(예: 흑인 학생들의 BLM 쟁점). **[해석]** '검열당하는 쪽은 누구인가'라는 진영 논쟁에 '침묵은 확신의 함수'라는 구조 변수를 넣는 실증이다 — 가장 많이 삼키는 중도파의 침묵은 토론의 중심을 양극에 내어 준다는 함의와 함께. 초록 인용이므로 저자들의 주장으로 전한다.

> **생략 3편 메모.** 마지널 레볼루션의 대담 소개(콘래드의 『 노스트로모 』 에 대한 코웬-하나니아 문학 대담 — 고전 자유주의 비판으로서의 콘래드 독법)은 문화 꼭지로 생략. 수요일 링크 모음은 생략하되 기록: 뉴욕타임스의 노르드하우스 부고 기사와 조카 테드 노르드하우스의 추모 글이 링크됐다(10월 30일 서거 이후 이 리포트가 3일 연속 전하는 추모 연속 — 데커(11/4), 힐섬 부고(11/5)에 이어), 신졸업자 실업률 5.2%로 올해 최저라는 항목, 대학이 정치 동원을 촉진하기에 정부가 학생 활동을 제한하려 한다는 연구 항목.

반드시 읽어 볼 원문

· 생활비 인하 수단 목록 (에콘브라우저)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1/a-list-of-cost-of-living-reduction-measures

· 가계 비용 도표 — 물가·주택·보험료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1/some-costs-facing-households-since-2024-consumer-items-housing-health-premiums

· 선거 사후 칼럼 모음 (카페 하이에크) — https://cafehayek.com/2026/11/some-links-3227.html

· 오염, 성장의 적 (인도 특집 소개)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pollution-as-growth-killer.html

· 대학 요청으로 저자 이름 삭제 (리트랙션 워치)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1/04/us-university-asks-journal-to-remove-professors-name-from-paper-with-coauthor-in-china/

· 허구 참고문헌 1년 방치 (리트랙션 워치)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1/04/daru-journal-pharmaceutical-sciences-springer-nature-fake-reference-cofounder-year-later/

· 캠퍼스 자기검열 NBER 논문 소개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what-drives-censorship-on-college-campuses.html

· 소셜미디어 극단화론 반론 (코웬)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social-media-and-political-radicalization.html